

성서 40 주간 (성서 37 주간 :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1. 책의 이름 : 복된 사도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 사도 바오로가 개인에게 직접 써 보낸 편지로 유일하며 1장으로 가장 짧다.
- 수신인이 필레몬은 콜로새 교회의 책임자로 추정되며 이 편지는 필레몬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낸 서간이다.

2. 저자 및 저술 연대

- 필레몬과 필립비서는 바울로 사도와 수신인들과의 깊은 우정과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주는 정다운 서간인데, 이 두 서간은 에페소, 골로사이서와 더불어 감옥에서 썼다하여 옥중서간 또는 수인서간이라 한다.
- 여러 가지 연구 결과 학계의 통설은 사도 바울로가 3차 전도 여행 중인 55-56년경 에페소 감옥에서 이 서간을 썼으리라고 한다.

3. 구조

- 1-3 절 : 인사와 축원
- 4-7 절 : 감사와 간구
- 8-21 절 : 오네시모스를 위한 부탁
- 22-25 절 : 마침 인사와 강복

4. 내용

-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필레몬 1-25 절)

이 편지는 25절밖에 안된다. 이처럼 한 장으로 된 성서를 말할 때는 ‘장’을 부치지 않고 ‘절’이라고만 한다. 이처럼 짧은 ‘쪽편지’이지만 큰 교회에 보내는 편지 양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바오로는 이 편지에서 친분과 권위를 아름답게 조화시키며 정답고 재치 있는 어조로 수신인을 감동시킨다.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로 지시하지 않고, 필레몬의 성숙한 신앙과 사랑에 호소한다. 필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너그럽게 맞이해 주기를 간청한다. ‘용서’를 주제로 한 이 편지에는 바오로의 인간성이 매우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편지의 중요성은 노예제도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교의 태도를 알려 줌에 있다고 본다. 이 서간은 그리스도교 사랑을 통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첫 언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노예법에 따르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극형에 처해질 중죄인 이었다.

당시 노예는 상거래의 중요 품목 중 하나로 사고 팔고 했다. 바오로는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었던 그 시대의 현실을 인정하며 노예 주인의 소유권을 존중한다.

바오로는 그러한 노예제도에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다.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현대 인권 존중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이 불과 150 여 년 전이다. 링컨이 1860 년에 노예해방을 선언하자 남부의 노예지주들의 대항으로 남북전쟁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이나 서구제국들에 인종차별이 남아있다. 우리 나라 역시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조선 후기에 ‘양반’ 과 ‘상놈’ 이라는 사회신분 계층이 엄격했고, 오늘의 우리 사회 역시 빈부계층간의 구조악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 2000 년 전 당시 노예제도는 당장에 폐지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노예주인 필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린다. 오네시모가 사회적 신분으로는 전과 다른없는 노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스러운 형제’ 라고 하며, 그 종을 사도 자신처럼 대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처럼 노예와 주인사이에 철저한 평등을 주장하는 필레몬서는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첫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노예를 선동하여 그들을 사회 혁명가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 노예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동등하게 대하게 하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다. 우리 한국의 200 년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이 비슷한 예가 있다. 1801년에 순교한 황 일광은 당시 조선 사회신분 제도에서 가장 천한 백정이었다. 그는 고백하기를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부터 자기에게는 천국이 둘 이라고 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살고있는 천국인데, 신분 높은 양반 교우들이 천민 출신의 자기를 같은 교우로 대우해 주는 것이 자신에게는 바로 ‘지상천국’ 이라고 했다. 서로 형제로 대하며 성찬을 함께 나누는 교우들의 상호관계는 실제로 사회적 신분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사회적 계급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는 평등 사상이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요인 중에 하나로 본다.

필레몬서의 메시지는 2000 년 대 희년을 선포하며 새 천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사람이나 일이나 물질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이는 다 내가 노예로 삼고 있는 ‘오네시모’ 임을 일깨워 주신다. 그리고 내가 노예로 붙들어 두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주라고 하신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로 존경하고, 대 사도를 맞이하듯 하라고 명하신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무엇이건 다른 사람에게 수고를 하게 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노예 취급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다. 실상 우리 삶은 큰 것으로가 아니라 작다고 소홀히 하기 쉬운 평상의 일들로 이루어진 때문이다. 오네시모를 잘 대우하라 하시는 필레몬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느님 사랑과 자유의 편지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삶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각 개인을 새롭게 할뿐 아니라 그릇된 사회 풍조와 뿌리깊은 구조악도 무력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다.